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 재 영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chyim@cdi.re.kr)

목 차

< 요약 >

- I. 경제의 순환과정과 사회계정행렬
 - II. 사회계정행렬의 구조와 작성과정
 - III.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살펴 본 충남 지역경제
- 참고문헌

《요 약》

- 경제 내 소득과 재화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출”로부터 발생하며,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의 순환과정(circulation process)을 통해 경제활동은 지속됨
- 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생산물순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음
- 생산물 순환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경제 내 다양한 활동을 생산과 수요로 구분하여 기본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와 함께 재화와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들의 소득형성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 분명하지 않은 가계부문이나 정부부문의 소득형성 메카니즘과 함께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 내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에 관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루기 곤란하므로 결국, 경제 내 흐름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가 경제의 순환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부문들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
 -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부문과 같이 그들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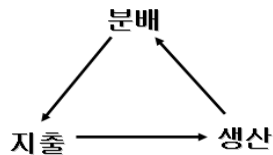
- 결론적으로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한 것으로, 특정 연도 해당 경제의 경제활동과 구조, 그리고 소득 및 재화의 흐름 등 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표임
-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는 바로 복식부기원리(double entry bookkeeping principle)임
 - 복식부기의 원리란 한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작성하는 방법이며, 이 원리에 따라 어느 한 부문의 수입은 바로 다른 부문의 지출을 동반하게 됨
 - 이로 인해 사회계정행렬에서는 경제 내 부문별 소득과 재화의 흐름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제시됨
- 2005년 충청남도의 전 산업부문 부가가치 합인 지역내 총생산(GRDP)은 45조 5,730억 원으로 이중 46%가 자본(토지 포함)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영업잉여와 고정자본 소모)이며, 41%가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임(피용자 보수)
 - 충남의 평균임금 수준은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경기도의 23.4백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충남 지역경제 GRDP 중 '13.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제일 크고, 이 외 '18. 건설'과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9.2%와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전체 생산규모의 37.2% 정도인 48조 7,020억 원의 재화와 서비스가 타 지역들로부터 지역내로 이입됨

- 충남 지역경제 내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는 전체 이입규모의 45%인 21조 9,720억 원에 해당함
- 충청권에서는 충북(4%)보다 대전광역시로부터의 이입규모(11%)가 상대적으로 큼
- 반대로 충남에서 생산된 전체 재화와 서비스 중 57조 2,520억 원 어치가 지역 외로 이출된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지역의 이출규모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조 4,410억 원이 수도권 지역으로, 약 38% 정도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국내 기타 지역으로 이출됨
- 이출과 이입의 구분 없이 지역 간 거래를 종합하면 충남 지역경제의 대수도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충남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문의 소득은 노동소득이 18조 8,830억 원으로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며, 나머지 52%가 자본과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임
 - 충남 가계부문은 자신의 전체 소득 39조 5,996억 원 중 41%인 16조 3,844억 원은 생활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지출하였음
 - 그리고 전체 가계소득의 27%는 저축하고 나머지 32%는 직접세(direct tax)로 정부부문에 지출하였음

1. 경제의 순환과정과 사회계정행렬

1) 경제의 순환과정

- 경제 내 소득과 재화의 흐름은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출”로부터 발생함



<그림 1> 경제의 순환과정

- 가계부문은 자신의 노동력과 자본을 재화의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그 대가로 임금(wage return)과 자본수익(capital return)을 얻게 됨
- 이들 임금과 자본수익 등은 바로 가계부문의 소득이 되며, 가계는 이 소득을 이용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지출하게 됨
- 그리고 가계부문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는 다시 생산요소(primal factor)인 노동과 자본을 가계부문으로부터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됨
- 이와 같이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의 순환과정(circulation process)을 통해 경제활동은 지속됨(한국은행, 2004 외)

- 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생산물순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음
 - 소득순환은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 즉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국민소득이 이윤, 임금,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어 소비재와 자본재의 구입이라는 처분활동을 거쳐 다시 다음의 생산과정으로 환류되어 가는 과정임
 - 이에 반해 산업간의 생산물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냄¹⁾(한국은행, 2009a)

2) 산업연관표의 한계와 사회계정행렬²⁾

- 생산물 순환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경제 내 다양한 활동을 생산과 수요로 구분하여 기본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와 함께 재화와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냄³⁾
 - 반면 이 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들의 소득형성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1)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산업연관표가 제외되나, 상기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간 연관관계(inter-industrial relationship)의 파악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2) 여기서 사회계정행렬(SAM)에 대한 설명은 주로 김홍배(2005)를 바탕으로 함

3)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matrix)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임(한국은행 2009a).

- 다시 말해 산업연관표를 보면 가계부문에서 소비하는 산업별 수요규모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한 규모의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가계부문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함
 - 이 외에도 투자수요의 규모는 가계부문 저축이나 정부 저축, 해외부문의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설명은 충분치 못함
 - 이러한 불충분한 설명은 정부의 지출과 그와 관련된 정부소득의 형성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은 가계부문이나 정부부문의 소득형성 메커니즘과 함께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 내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에 관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루기 곤란함
- 결론적으로 산업연관표는 경제 내 흐름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소비나 투자 그리고 정부지출 등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 내 산업들의 생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됨
 - 즉, 생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발생한 소득이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소비가 다시 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도하는 것임
- 산업연관표가 이러한 ‘생산-분배-지출’의 순환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부문들과 같은 형태로 산업연관표에 제시되어야 함

- 왜냐하면 산업연관표의 한계는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주체들의 소득 형성 과정과 그들의 지출과정이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임
- 모든 경제주체들이 산업부문과 같이 그들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적으로 말해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산업연관표라면, 산업부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종합적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회계정행렬임
- 특히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한 것으로서 특정 연도 해당 경제의 경제활동과 구조, 그리고 소득 및 재화의 흐름 등 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표임

2. 사회계정행렬의 구조와 작성과정

○ 구조 측면에서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와 다르게 행(row)과 열(column)을 구성하는 항목이 동일함

- 사회계정행렬이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들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그들 간의 거래를 나타내기 위함임
- 이 때 사회계정행렬의 행은 수입(receipts or incomings)을 그리고 열은 지출(expenditures or outgoings)을 가리키며, 한 부문의 수입은 그 부문의 지출과 같게 됨
- 즉, 각 부문의 행의 합과 열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함⁴⁾

○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는 바로 복식부기원리(double entry bookkeeping principle)임

- 복식부기의 원리란 한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작성하는 방법이며, 이 원리에 따라 어느 한 부문의 수입은 바로 다른 부문의 지출을 동반하게 됨
- 이로 인해 사회계정행렬에서는 경제 내 부문별 소득과 재화의 흐름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제시됨
- 따라서 사회계정행렬은 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도 나타내므로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표인 것임

4) 사회계정행렬의 행은 열의 부문으로부터 얻은 소득 또는 행으로부터 열의 부문들에게 판매한 금액을, 그리고 열은 행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가리킴.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계정행렬의 구조에 대해 특정한 제한이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임
 - 즉,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집되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사회계정행렬의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Pyatt and Round, 1985)
 - 사회계정행렬은 산업부문간 이루어지는 중간재 거래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거래를 나타내는 미시적 사회계정행렬(micro SAM)과 산업부문간 상세한 거래를 합하여 총액만을 제시하는 거시적 사회계정행렬(macro SAM)으로 구분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계정행렬은 직접 조사되어 작성되기 보다는 산업연관표로부터 간접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 왜냐하면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일률적으로 모두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사회계정행렬을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산업연관표로부터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분석 및 경제분석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들에서 CGE 모형 적용과정에서 사회계정행렬 작성을 통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⁵⁾

5) 이러한 내용은 충남지역경제분석모형(CREAM)을 통한 지역경제 분석과 예측을 위한 과정에도 충남 지역경제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이 필수적임을 가리키는 것임.

구분	계정 1 계정 2 ... 계정 i ... 계정 n	계
계정 1		S_1
계정 2		S_2
·		·
계정 i		S_i
·		·
계정 n		S_n
계	S_1 S_2 ... S_i ... S_n	

출처 : 김홍배(2005)에서 인용.

<그림 2> 사회계정행렬의 일반 구조

- 여기서도 한국은행(2009b)에서 제공하는 2005년 기준 16개 광역시도 단위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김홍배(2005)와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적 방법을 이용하여 충남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함(작성 결과는 <표 1> 참조⁶⁾)

- 따라서 작성된 충남 사회계정행렬의 내용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함

6) 제시된 충남 사회계정행렬은 거시적 SAM의 형태임

〈표 1〉 충남 지역경제의 사회계정행렬(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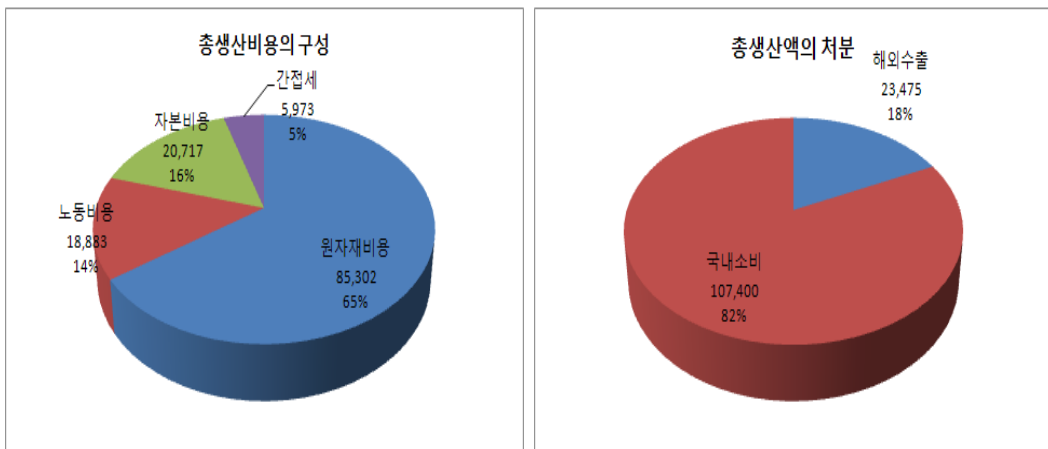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생산활동	재화		생산요소		가계	정부	자본시장	계고	타지역				해외	합계
		복합재	지역복합재	노동	자본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기타지역	
생산활동		107,400													130,875
재화	복합재		183,854												183,854
	지역 복합재					16,384	6,102	18,475	439		3,406	3,355	28,441	21,950	183,854
생산요소	노동			18,883											18,883
	자본				20,717										20,717
가계				18,883	20,717										39,600
정부	5,973		1,113			12,736									19,822
자본시장						10,480	13,720				1,800	1,473	6,469	2,308	18,914
계고								439							439
타 지역	충남														-
	대전	5,206													5,206
	충북	1,882													1,882
	수도권	21,972													21,972
	기타지역	19,642													19,642
해외			26,639												26,639
합계	130,875	156,102	183,854	18,883	20,717	39,600	19,822	18,914	439	-	5,206	1,882	21,972	19,642	26,639

3.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살펴 본 충남 지역경제 7)

1) 충남 지역경제의 총생산과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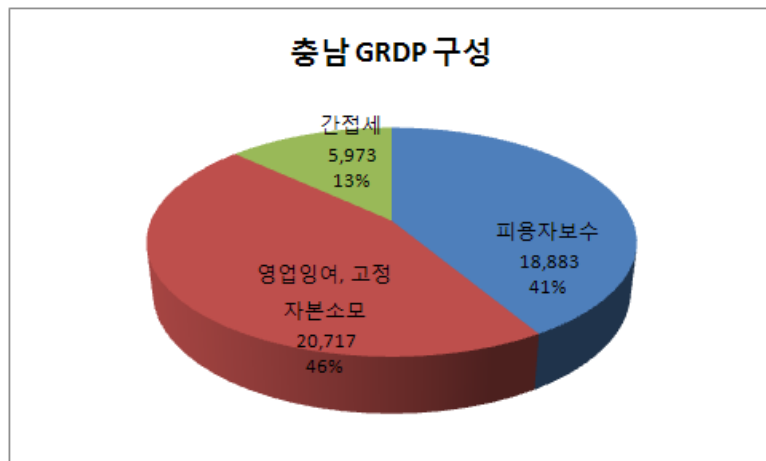
- 2005년 충청남도에서는 총 130조 8,750억원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었으며, 이중 18% 23조 4,750억원 어치의 상품이 해외에 수출되고 나머지 82%인 107조 4,000억원 어치의 상품이 국내 여러 지역들에서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와 최종재로 소비됨



〈그림 3〉 충남 지역경제의 총생산 규모

- 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설명은 200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함. 향후 지역 산업연관표와 사회계정행렬 작성작업이 계속됨으로써 관련 자료의 연속적 획득은 가능함. 그리고 각각의 시계열적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보다 의미있는 결과들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리고 충청남도내에서 총생산액의 65%에 해당되는 85조 3,020억원이 원자재 등 중간재를 구입하는데 이용되었고, 총생산액의 16%와 14%에 해당하는 20조 7,170억원과 18조 8,330억원이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사용됨
- 2005년 충청남도의 전 산업부문 부가가치의 합인 지역내 총생산(GRDP)은 45조 5,730억원으로 이중 46%가 자본(토지 포함)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영업잉여와 고정자본 소모)이며, 41%가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임(피용자 보수)⁸⁾
- 이러한 관계로부터 만일 우리가 같은 시점 지역경제 내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력 규모를 알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평균임금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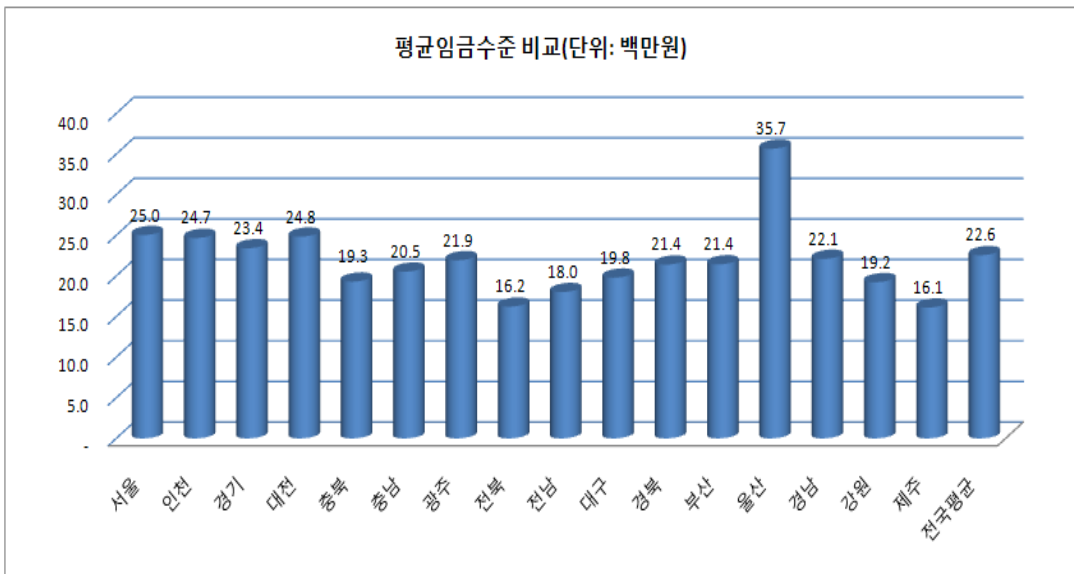


〈그림 4〉 충남 지역경제의 GRDP 구성

- 8) 전체 부가가치 중 자본과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은 각각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의미함.
- 9)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도 유추할 수 있으나, 자본의 측정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2) 평균임금

○ 2005년 기준으로 계산된 16개 광역시도별 평균임금은 <그림 5>와 같음¹⁰⁾



<그림 5> 광역시도별 평균임금 비교(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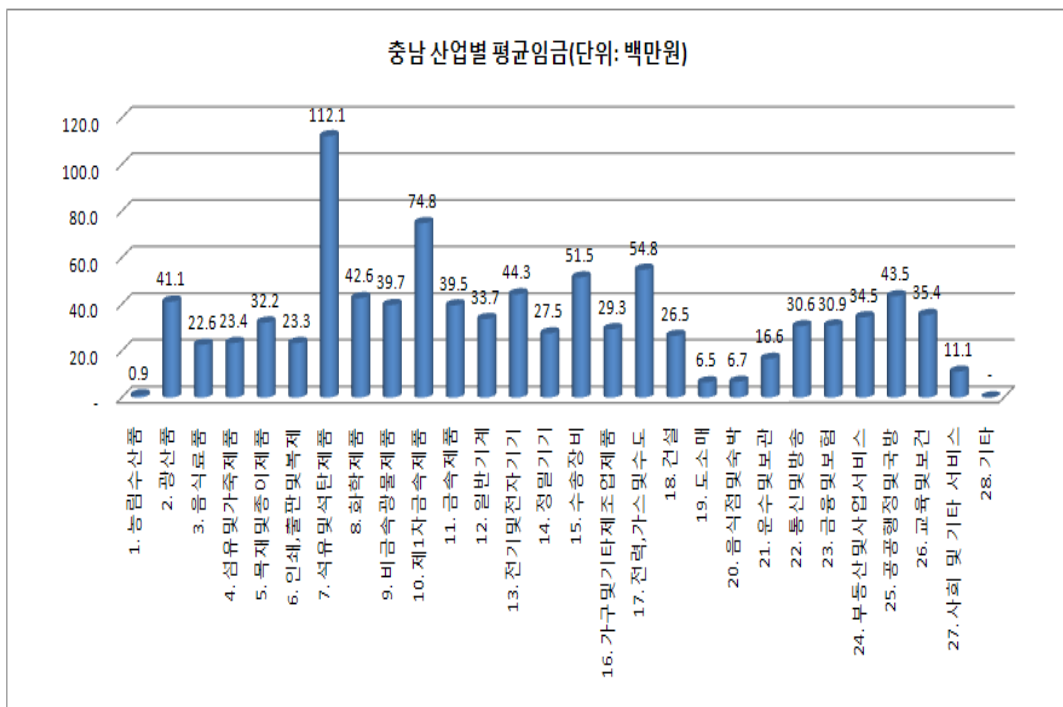
○ 평균임금은 결국 각 지역경제 단위 노동당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 2005년 기준 충청남도의 취업자 1인당 평균임금은 20.5백만원으로, 전국평균 22.6백만원을 밑도는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평균임금 수준은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경기도의 23.4백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10) 평균임금(average wage)은 1인당 GRDP와 다른 개념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한 노동의 보수(return)를 나타냄. 해당 업종 및 고용의 형태(피용자 또는 종사자, 취업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여기서는 한국은행(2009b)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표 상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취업자 1인당 평균임금을 의미함.

○ 충남 지역경제 내에서 산업업종별 취업자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음

-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28개 산업부문 중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7.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과 ‘10. 제1차금속제품제조업’, 그리고 ‘17. 전력, 가스 및 수도’ 등의 업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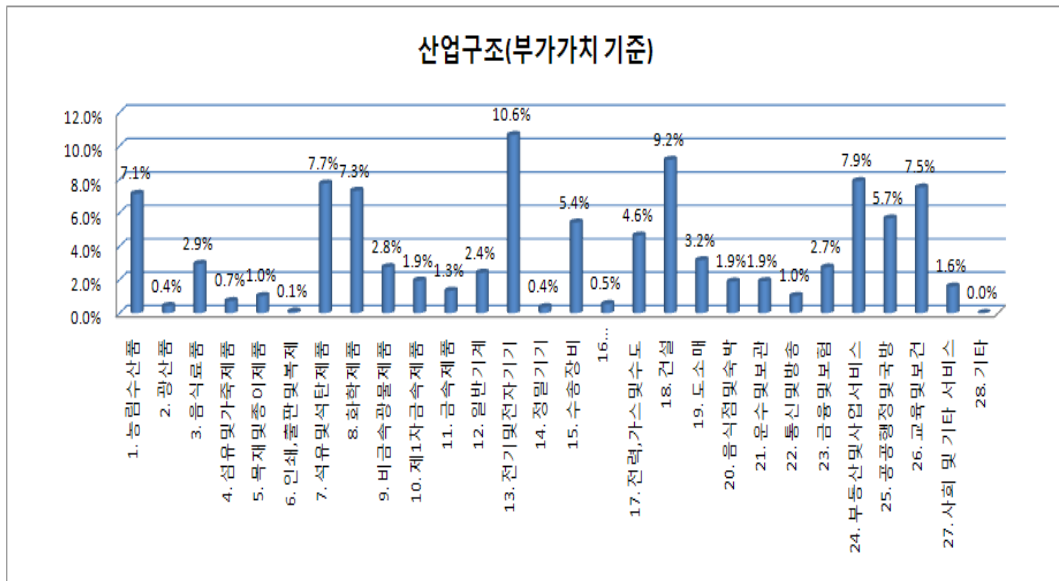
<그림 6> 충남 산업별 평균임금 비교(2005년 기준)

- 반면 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은 ‘1. 농림수산물’과 ‘19. 도소매’, 그리고 ‘20.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업종임

- 평균임금의 지역간 비교는 노동비용 측면에서 충남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므로, 상기 자료는 충남 내 산업업종간의 비교가 아니라 16개 광역 시도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원리로 요소비용 측면에서 자본비용과 토지비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으로부터 지역경제의 다양한 제반 환경(endowments)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가능함

3)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 부가가치(value-added)를 기준으로 제시된 충남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는 <그림 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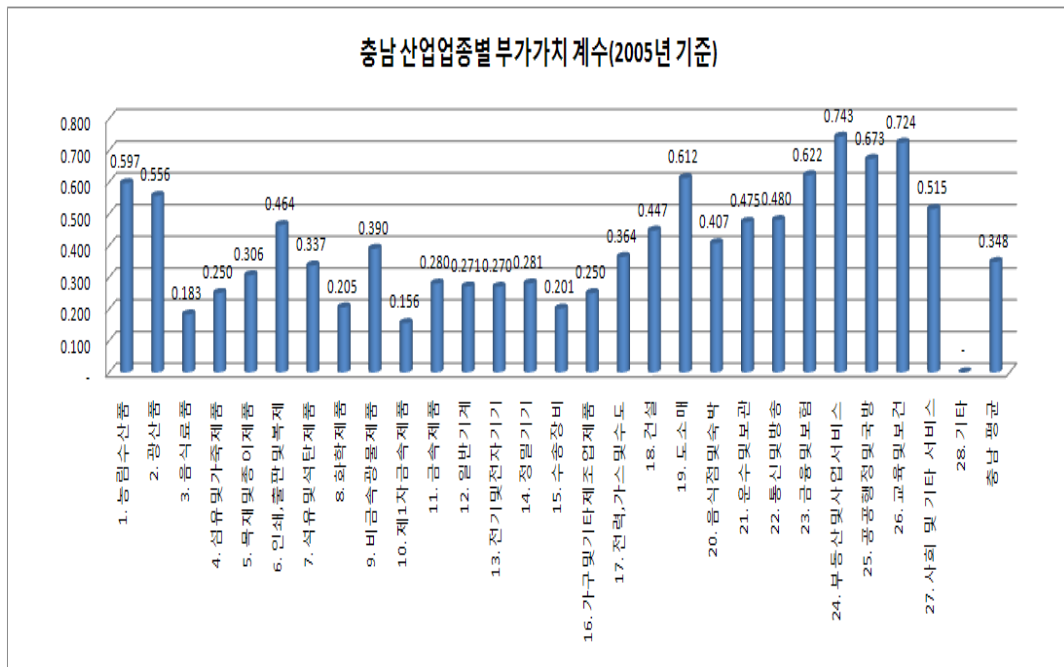
<그림 7> 충남 지역경제의 산업구조(2005년 기준)

○ 충남 지역경제 GRDP 중 ‘13.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제일 큼

- 이 외 ‘18. 건설’과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9.2%와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2005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의 각 산업업종별 부가가치 계수(부가가치액/총생산액)는 <그림 8>과 같음

-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서비스 업종의 부가가치 계수가 제조업에 비해 높음



<그림 8> 충남 지역경제의 산업업종별 부가가치 계수(2005년 기준)

4)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

○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를 구성하는 지역경제(regional economy)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의 특징을 가짐

- 지역경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물론 재화들의 공간적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가 전제됨(김홍배, 2005)
- 따라서 지역경제간 상품(재화) 등의 지역 간 거래는 지역경제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¹¹⁾

○ 특히 지역 간 거래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타 지역에 대한 의존정도 및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그리고 지역 간 거래에는 중간재와 최종재 등 상품의 이동(commodity flow)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득과 자본이동(ex:투자) 등을 포함한 화폐적 흐름(monetary flow)까지 나타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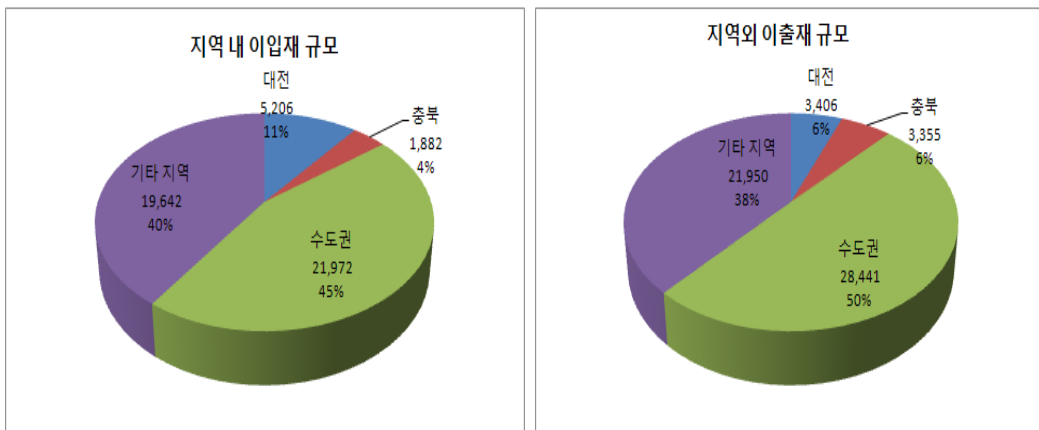
○ 상품의 흐름은 충남 지역경제에서 생산되어 타 지역의 중간재나 최종재로 소비되는 지역이출과 반대로 타 지역들에서 생산된 상품이 충남으로 이입되는 지역이출¹²⁾로 구분할 수 있음

11) 재화의 흐름(commodity flow)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소득의 형성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화폐의 흐름(monetary flow)을 파악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함.

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생산요소가 어떻게 이동되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어떻게 처분되어 공간적으로 배분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민계정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계정(regional economic account) 작성의 목적 또는 필요성이라 할 수 있음

12) 지역 이·출입은 곧 전통적 의미의 대외 수출입이 아닌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수출입을 의미함.

- 충남 전체 생산규모의 37.2% 정도인 48조 7,020억원의 재화와 서비스가 타 지역들로부터 지역내로 이입됨
 - 충남 지역경제 내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를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는 전체 이입규모의 45%인 21조 9,720억원에 해당함
 - 충청권에서는 충북(4%)보다는 대전광역시로부터의 이입규모(11%)가 상대적으로 큼
 - 이러한 결과는 대전시가 충청권 전체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히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충남 지역경제가 대전에 의존하는 바가 충북보다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9> 2005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의 국내 지역간 거래규모(단위: 십억원)

- 반대로 충남에서 생산된 전체 재화와 서비스 중 57조 2,520억원 어치가 지역 외로 이출된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지역의 이출규모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조 4,410억원이 수도권 지역으로, 약 38% 정도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 국내 지역으로 이출됨
- 이출과 이입의 구분 없이 지역 간 거래를 종합하면 충남 지역경제의 대수도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 이러한 자료가 꾸준히 생산됨으로써 시점간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분석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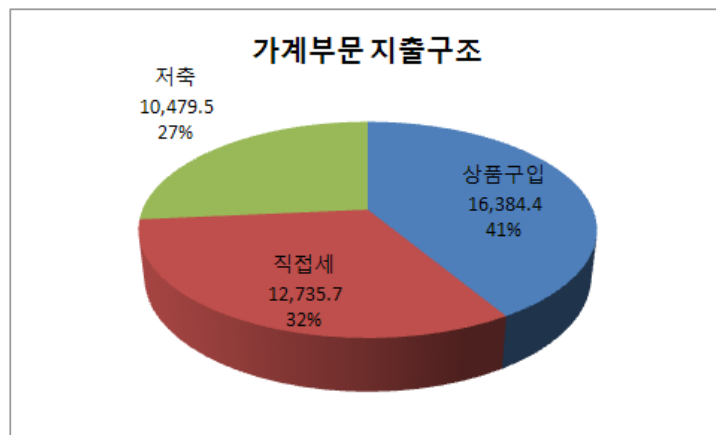
5) 가계부문의 수입과 지출

- 경제 내에서 가계(household)는 자신이 보유한 자본¹³⁾과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firms)의 생산과정에 제공함으로써 그 보수(return)를 소득으로 얻게 됨
- 이 보수는 각각 자본수익(capital return)과 토지임차료(land rent), 그리고 임금(wage)으로 구분됨¹⁴⁾
- 충남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가계부문의 소득은 노동소득이 18조 8,830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며, 나머지 52%가 자본과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임

13) 가계와 자본(capital)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학에서는 Harrod-Domar나 Solow 이래 ‘저축이 투자를 결정짓는다.($S = I$)’는 가정이 오랫동안 널리 적용되어 왔다(김홍배·임재영, 1998,1997)

14) 부록의 충남 사회계정행렬에서는 자본소득(자본수익과 토지임차료 등)과 노동소득(피용자보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렇게 형성된 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충남 지역경제 가계부문의 지출 구조는 <그림 10>과 같음
 - 충남 가계부문은 자신의 전체 소득 39조 5,996억원 중 41%인 16조 3,844 억원은 생활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지출하였음
 - 그리고 전체 가계소득의 27%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 32%는 직접세(direct tax)로 정부부문에 지출하였음
- 지역경제별 가계저축과 직접세 규모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검토 및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 국민계정과 달리 지역경제계정은 소득과 분배, 그리고 지출 등의 측면에서 충실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기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그림 10> 2005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 가계부문의 지출구조(단위: 십억원)

- 이외 정부부문과 자본시장 해외부문 등의 수입과 지출 역시 제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해외부문을 제외한 정부부문과 자본시장 부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직접세와 저축의 예와 유사하게 그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정부부문의 경우 그 수입은 크게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 그리고 관세 및 수입상품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반면, 그의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지출 주체별로 세분될 필요가 있음
- 국민계정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국민경제의 시스템이 파악되고 있듯이 지역계정 역시 국민계정 작성 원칙에 입각¹⁵⁾하여 지역경제의 유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엄밀히 말해서 사회계정행렬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전체적 모습이 각 세분된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애초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충남 지역경제를 개관해 보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항목들을 대상으로 한 나열 중심의 설명만 이루어진 한계가 있음
- 특히 본문에서 제시된 각 부문별 설명이 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역간 비교 등의 상대적인 지표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결과는 보다 객관적으로 충남 지역경제의 현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향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임

15) UN에서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에서 이 체계에 입각하여 국민계정을 작성·발표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김홍배·임재영(1998), “남북한 경제통합과 지역성장정책,” 한국지역학회지 「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pp. 47-64.

김홍배·임재영(1997), “통일 후 생산요소의 이동과 지역경제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89호), pp.239-252.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2009a), 「2007년 기준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09b), 「200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

Graham Pyatt and Jeffery I. Round(1985), *Social Accounting Matrices: A Basic for Planning*,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임재영, chyim@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34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보고서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사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권영현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